

보도시점 2025. 9. 17.(수)
행사 시작(09:30) 이후

배포 2025. 9. 16.(화)

전 세계 보건의료 리더 한국에 모여, ‘혁신에서 접근으로,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 논의

-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25.9.17.)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9월 17일(수) 서울 신라 호텔에서 ‘혁신에서 접근으로: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을 주제로 「2025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보건 위기 대응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한 국제행사이다. 한국 정부와 WHO의 주도하에 전 세계 바이오 분야 리더(각국 보건 장·차관, 국제기구 수장, 백신·바이오기업 대표, 전문가 등)들이 모여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 제4회 서밋은 APEC 보건과정제고위급회의(9.15-9.16)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의료 AI의 미래, ▲고령화 & 의료기술, ▲바이오클러스터 혁신 등 세부 주제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행사 전날(9월 16일)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개회식, 세션 1(의료 AI의 미래), 세션 2(고령화 & 의료기술), 세션 3(바이오클러스터 혁신) 및 폐회식으로 구성된다. 1,000여 명의 국제기구·정부 관계자, 바이오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세션 이외에도 부대행사 및 비즈니스 라운지도 운영한다.

개회식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함께 무스타파 페르자니 (Mustapha Ferjani) 튀니지 보건장관,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Eduardo Pedrosa) APEC 사무국장 등 국제기구와 각국 대표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후 서범석 (Brandon Suh) (주)루닛 대표를 좌장으로 리더스 다이얼로그 (Leaders' Dialogue)를 개최한다. 리더스 다이얼로그에는 필립 뒤통 (Philippe Duneton) 국제의약품구매기구 (Unitaid) 사무총장, 페니 셰익스피어 (Penny Shakespeare) 호주 보건부 차관보, 케이 조 (Kei Cho)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뇌과학 교수, 크리스찬 로드세스 (Christian Rodseth) 존슨앤존슨 사 (社) 제약부문 북아시아 총괄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 혁신 촉진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 (루닛, Lunit) 국내 중견·중소기업 최초이자 전 세계 의료 AI 기업 최초로 세계경제포럼 영구회원 자격을 획득한 AI 암 진단 솔루션 분야 선두 주자

세션 1에서는 “의료 AI의 미래: 글로벌 협력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제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관리 체계와 정책, 의료 AI 서비스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AI 기술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종종 만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세션에는 박기동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WHO WPRO) 데이터전략혁신국장, 차원철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 센터장, 란 발리서 (Ran Balicer) 이스라엘 클라릿 헬스케어 서비스 (Clalit Health Services 社) CIO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의료 AI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와 임상 현장에서의 의료 AI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고령화 & 의료기술: 품격 있는 노년의 삶과 혁신”을 주제로 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신적·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 노화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마사키 에미코 (Emiko Masaki)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 보건전문관, 박형순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교수, 모리쿠니 토비타(Tobita Morikuni) 일본 준텐도대학교 교수, 김민영 분당차병원 교수 등이 참석하여 AI와 로봇틱스 기술이 융합된 에이지테크(Age-Tech)의 발전동향 및 전망을 토크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건강 노화에 대한 국제기준과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바이오·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고령사회 혁신 모델을 탐색하고자 한다.

세션 3에서는 “바이오클러스터: 지역·경계를 넘어선 바이오 생태계 혁신”을 주제로 바이오클러스터가 단순한 공간의 집적을 넘어서, 연구와 기술, 인재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진정한 협력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스티븐 조(Stephen Cho) 전(前) 노바티스 수석부사장, 한남식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밀너 의약연구소 AI 연구센터장, 카와마타 신(Shin Kawamata) 일본 고베대학교 과학기술혁신대학원 특임교수 등 전 세계 바이오클러스터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클러스터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클러스터 고도화 전략도 다룰 예정이다.

폐회식에서는 각 세션과 부대행사에서 논의된 주요 토론내용을 좌장들이 브리핑할 예정이며, 이어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폐회사로 제4회 세계 바이오 서밋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행사 기간 중 질병관리청,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GTH-B)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공공기관·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세미나 형식의 13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국제 비영리 기구, 바이오기업 등이 참여하는 11개의 비즈니스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날 전 세계는 AI, 첨단 바이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보건의료 혁신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는 WHO와 함께 지리적·사회경제적 장벽을 넘어 전 세계 모두가 보건의료 기술 발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의료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포스터
 2. 참석자 현황
 3.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행사일정표
 4.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세션 주요 내용
 5.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부대행사 주요 내용
 6.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비즈니스 부스 현황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한숙 (044-202-2901)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044-202-2903)
		담당자	사무관	김종진 (044-202-2919)
		담당자	사무관	권태윤 (044-202-291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백영하 (044-202-2940)
		담당자	사무관	정지영 (044-202-2941)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 고령사회기반과	책임자	과 장	신영우 (02-2100-1273)
		담당자	전문위원	배지연 (02-2100-126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2980)
		담당자	사무관	임성민 (044-202-2991)





1. 주요 국외 인사(초청 VIP·세션 연사, 축하 등)

- APEC 사무국장, Unitaaid 사무총장, 튀니지 보건부 장관, StopTB 대표, 보건장·차관(급)(5명), 주한대사(급)(25명), 39개국 57명 참석
 - (장관(급)) 튀니지 보건장관, 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 장관(영상) 2명
 - (차관(급))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차관, 베트남 보건차관, 피지 보건부 부장관, 캐나다 보건부 차관보, 호주 보건부 차관보 5명
 - (국제기구) APEC 사무국장, Unitaaid 사무총장, Stop TB 파트너십 대표, WHO(WPRO) 국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보건전문관

대륙구분	국가별 참석자 수
아시아·태평양 (19개국, 30인)	대한민국 3, 라오스 1, 레바논 1, 베트남 2, 사우디 2, 싱가포르 3, 아제르바이잔 2, 이란 1, 이스라엘 1, 이라크 1, 인도 1, 일본 4, 중국 1, 카타르 1, 쿠웨이트 1, 타지키스탄 1, 투르크메니스탄 1, 피지 2, 필리핀 1
유럽 (8개국, 9인)	영국 1, 라트비아 1, 루마니아 1, 스웨덴 1(영상), 스위스 2, 아일랜드 1, 오스트리아 1, 덴마크 1
아프리카 (7개국, 10인)	나이지리아 1, 모리셔스 1, 앙골라 1, 에티오피아 1(영상), 탄자니아 1, 튀니지 4, 남아공 1
미주 (3개국, 5인)	도미니카 공화국 1, 미국 2, 캐나다 2
남미 (1개국, 1인)	에콰도르 1
오세아니아 (1개국, 2인)	호주 2

2. 일반참석자

- 현재 홈페이지(<https://worldbiosummit.kr>)를 통해 일반 참석자 사전등록 접수 완료(9.12), 총 2,003명 등록(9.12일 24시 기준)
 - * 국내 등록자 1,608명, 해외·APEC 등록자 395명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행사 일정표

□ 전체일정

시간	9.15(월)	9.16(화)	9.17(수)
09:00		세션 1. 개회식 (09:00-10:00)	개회식 (09:30~10:30) (개회사) 보건복지부 장관, WHO사무총장(영상) (축사)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APEC 사무국장 등 세션 1. 의료 AI의 미래 (10:30~13:00) (개회사) 보건의료정책실장 (축사) 의학한림원장, 캐나다 보건부 차관보
10:00		세션 2. 디지털 헬스 (10:00-12:00)	
11:00			
12:00		세션 3. ABAC 주최 공식오찬 (12:00-14:00)	
13:00			
14:00	APEC 실무회의	세션 4. 건강한 노화 (14:00-16:00)	세션 2. 고령화&의료기술 (13:30~16:00) (개회사) 저고위 고령사회국장 (축사) 스웨덴 고령사회부장관(영상), 호주 보건부 차관보
15:00			세션 3. 바이오클러스터 (15:00~17:20) (개회사) 제2차관 (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6:00		세션 5. 청년 정신건강 (16:00-18:00)	
17:00			
18:00	APEC 전담 리셉션 (18:00-21:00)	세션 6. 공동선언문 발표 및 폐회 (18:00-19:00)	폐회식 (17:30-18:00) (브리핑) 세션·부대행사 좌장 (폐회사) 보건복지부 제2차관
19:00		APEC- 세계바이오서밋 합동 만찬 (19:00-20:40)	바이오서밋 APEC
20:00			

세션 1.
의료 AI의
미래:
글로벌
협력과
지속가능한
혁신
(10:30~
12:50)

의료 AI의 미래: 글로벌 협력과 지속가능한 혁신
(세션 파트너: WHO WPRO, 삼성서울병원, Health AI)

최근 의료 AI는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시장 규모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은 고령화 시대의 효과적 의료대응 체계로의 전환, 필수의료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 경감, 암·치매 등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혁신적 진단·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진단 보조 분야,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AI 사용에 따르는 법적·윤리적 책임, 의료기관 간 인프라·기술력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형평성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AI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 규제체계의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 AI가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술적·교육적 측면을 다룰 예정이다. 나아가 글로벌 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 AI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데이터 공유, 기술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 AI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공동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 주제)

-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정책
- 의료 AI 개발을 위한 지원전략
-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 AI
- 의료인력의 의료 AI 수용성
-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
-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의 미래방향

(개회사)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축사 1) Sarah Lawley 캐나다 보건부 차관보

(축사 2)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교수

(좌장) 김주한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 교수

(연사&토론) 박기동 WHO(WPRO)/Director of Data, Strategy and Innovation)

Yukihiro Hisanaga 일본 AMED 국제협력국장

차원철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센터장

Ran Balicer 이스라엘 Clalit 최고정보책임자(CIO)

Newton Wahome Senior AI/ML Lead, R&D Innovation at CEPI

(토론) 나균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예종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 대학원 교수

Ngiam Kee Yuan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료시스템 최고기술책임자(CTO)

세션 2. 고령화 & 의료기술 (13:30 ~ 16:00)	고령화 & 의료기술: 품격 있는 노년의 삶과 혁신 (세션 파트너: 한국·스웨덴·호주 보건관련 정부부처, 주한 덴마크 대사관, 한국재생의료진흥재단, 한국노년학회, 카이스트, 분당차병원 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세계 각국은 '단순한 수명 연장'에서 나아가, 삶의 질과 기능을 유지하는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로 정책적, 과학적 초점을 전환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ge-Tech는 고령층의 신체·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독립적인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차세대 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 중이다. 본 세션은 AI, Bio, Robotics 등의 기술이 융합된 Age-Tech를 통해 건강한 노화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조망하고, 정책, 산업, 국제협력, 기술혁신 사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특히 해외 전문가 등과 함께 기술 기반 건강노화에 대한 국제 기준과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Age-Tech 분야에 진출하거나 공동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및 디지털 기술 간 융합 촉진을 통한 고령사회 혁신 모델 수립, 한국형 Age-Tech 전략과 정책 기반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 제시 및 해외 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 의제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부 주제) · 글로벌 초고령화 현황 및 전망 · 글로벌 Age-Tech 발전 현황 및 전망 · Age-Tech와 로보틱스 · 항노화 의료기술의 현재와 미래 · 일본 첨단재생의료기술의 현재와 미래 · 건강노화를 위한 첨단 헬스케어 발전 방향 (개회사) 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국장 (축사 1) Anna Tenje 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 장관^{영상} (축사 2) Penny Shakespeare 호주 보건부 차관보 (좌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연사) Emiko Masaki ADB 사회개발국장 Zen KOH, 싱가포르 MotusAcademy CEO 박형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민영 분당차병원 교수 Tobita Morikuni, Juntendo Univ. 교수 (토론) Mads Friberg, 덴마크 보건의료 참사관, Zen KOH, 싱가포르 MotusAcademy CEO, 윤현주 ADB Specialist 이동희 산업연구원 실장,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최재연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대표
--	--

세션 3. 바이오 클러스터 : 지역·경계를 넘어선 바이오 생태계 혁신 (15:00~17:20)	바이오클러스터 : 지역·경계를 넘어선 바이오 생태계 혁신 (세션 파트너: SSC Strategic Advisors, Cambridge, Kobe Univ, Basel, K-MEDihub, GBSA)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인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단순한 공간의 집적을 넘어, 연구와 기술, 인재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보건 이슈와 기술 융합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의 글로벌 연계의 필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고유한 클러스터 운영 모델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세션은 국내외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들이 각자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연계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국제 네트워크의 장이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공동 실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보건 증진과 모두를 위한 의료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부 주제) ·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발전·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 ·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성공 사례 및 국내 협력 경험 공유 ·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글로벌 연대 협력의 필요성 ·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과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협력 방안 (개회사)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축사)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좌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사&토론) Stephen Cho SSC Strategic Advisors LLC 대표 한남식 캠프리지대학교 밀너 의약연구소 AI 연구센터장 Shin Kawamata 고베대학교 과학기술혁신대학원 특임교수 Paul Eschmann 스위스 바젤투자청 국제시장·비즈니스 책임자 박구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 (토론) 김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경영실장 차병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의생명센터장(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	--

붙임 5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부대행사 주요 내용

연번	일시	일시 · 장소	제 목	주관
1	9.15 (월)	16:30-18:30, 마로니에(3층)	아태지역 내 성인 예방접종 정책 강화: 지역적 정합성과 글로벌 연계	국제백신 연구소
2		18:00-20:30, 라일락(3층)	한-미 보건산업 협력 네트워킹 포럼 2025	이투데이
3	9.16 (화)	14:30-18:40, 라일락(3층)	라이트재단의 글로벌 보건 R&D 투자: 성과와 향후 기회	라이트재단
4		09:30-11:00, 라일락(3층)	글로벌 혁신과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국가 보건데이터 활용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5		09:30-11:00, 마로니에(3층)	인공지능 기반 암 검진 및 정밀의학	(주)루닛
6		14:00-16:00, 마로니에(3층)	실천으로 구현하는 형평성: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질병관리청 국제의약품 구매기구
7		10:30-12:30, 메이플(3층)	K-팝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한국 건강 기술의 힘	STOP TB Partnership
8		14:00-18:00, 다이너스티3(2층)	디지털헬스의 미래: 학계, 산업, 국제개발의 융합	한국국제 의료재단
9		16:30-18:30, 마로니에(3층)	유전체 혁신에서 실질적 성과로: 질병 이해, 정밀 의료, 공중보건의 새로운 전환점 모색	ILLUMINA
10	9.17 (수)	11:00-12:25, 라일락(3층)	건강한 미래를 위한 혁신: 담배 규제 및 지속가능한 건강증진을 위한 디지털 접근법	한국건강증 진개발원
11		14:00-16:00, 라일락(3층)	글로벌 바이오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12		14:00-16:00, 메이플(3층)	합의에서 실행으로: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규제시스템 강화	아시아개발 은행
13		16:30-18:00, 라일락(3층)	도전 중심 혁신 프로젝트를 통한 초고령사회 의료 변혁	K-헬스미래 추진단 한국보건산 업진흥원

<부스 목록>

부스	기관/기업 분류	부스 이름	위치
1	기업	코오롱 (티슈젠, 생명과학, 바이오텍)	Zone 1
2	기업	루닛	
3	기업	이노크라스 코리아	
4	기업	법무법인 태평양	
5	기업	씨젠의료재단	
6	공공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7	국제 비영리 기구	MPP(의약품 특허풀)	
8	의료기관	국제성모병원	
9	기업	코딯(정책AI)	Zone 2
10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	
11	공공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부스 배치도>

